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6월 9일 (제1006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똑바로 서자

‘똑바로 서있는 자의 그림자는 빼돌어지지 않는다.’ 늘 나의 마음속에 두고 나를 다지는 말이다.

다리를 다쳐서 몇 주간 기도원에 있느라 오래간만에 인천교회 주일에배를 인도하러 갔다. 차에서 내려 성도들과 인사를 하는데,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이 ‘목사님 건강 때문에 금식기도를 했어요.’라며 내 손을 잡고 반가워 어쩔 줄을 모른다. 황송하다는 것이 이럴 때 쓰는 말일까. 정말 황송했고 몸 둘 바를 몰랐다. 자신들 몸 돌보기도 버거울 연세에 나 때문에 금식을 했다니... 나는 성전 계단을 오르며 새삼 다짐을 했다. ‘그래, 저렇게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저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안 되지. 끝까지 잘 가야겠구나.’

목회 35년 동안 받은 핍박과 모함,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었다. 그 고난은 실상 훗날 받을 나의 상이요 면류관인 지라 그날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힘든 것은 올바르게 걷는 것이었다. 나를 절제하는 것, 많은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 나태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과 무진장 싸웠고 이겨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노라 단언했듯, 나도 늘 나의 앓고 서는 것, 숨 쉬는 것조차 다 보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똑바로 걸려고, 올바른 삶을 살려 애썼다.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인격적으로 지탄 받는 것을 핍박받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 때문에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비인격적인 행동이나 언어 때문에 지탄을 받은 대목이 성경에 있든가!

나는 안다. 거목이 되기까지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지만, 그것이 잘리는 데는 단 몇 분이면 된다는 사실을. 그동안 내가 쌓아온 많은 것들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공들인 탐도 계속 공들여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오늘도 성경을 거울삼아 나를 비추고 나를 살핀다. 우리 성도들 마음 안 아프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 마음 안 아프게 하려고.

안하는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

지난 수요일, 목사님은 목포집회 준비 차 목포 지교회 목회자들과 회의를 하시기 위해 목포에 내려가 계셨다. 대신 수요일 저녁예배에 3년 전 철야설교를 영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이 영상예배를 통하여 목사님은 옛말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지만, 오히려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라’는 역발상을 강력히 주문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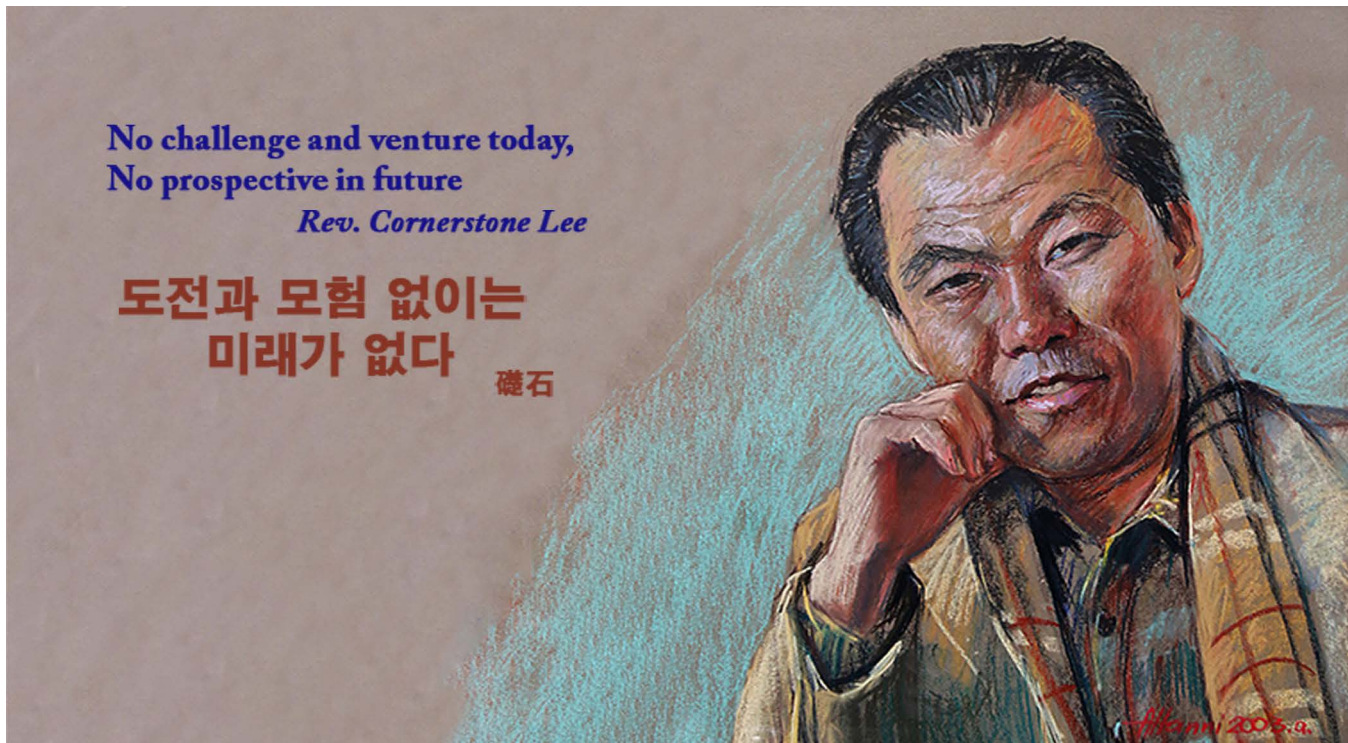
“나는 이제 목회 35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현실에 안주하고 머물렀다면 오늘의 예수중심교단은 없습니다. 옛말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었지만, 아닙니다. 쳐다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불가능이

데 그 과정이 힘드니 안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놓곤 못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시도조차 안하려합니다. 시도하지 않고 어찌 성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시도가 있어야 경험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누차 말하지만 경험을 능가할 지식은 없습니다. 실패했다고 하지만, 사실 실패가 아니라 실패하는 경험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실패하는 길을 피해갈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도전이 없이는 미래도 없다’고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처음 철야예루살렘교회를 개척하고

이 가득 차 도저히 예수님이 계신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였을 때,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냥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네 친구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만 데려간다면 반드시 고침을 받는다는 믿을 말입니다. 그런 믿음과 의지가 분명했기에 건물주인이 아우성치든 말든 일단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환자를 내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막9:23).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빌4:13)고 하지 않습니다. 못 올라갈 나무, 쳐다보세요. 도



란 없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왕의 자녀가 못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단호히 말하지만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하는 겁니다. 영어가 안 된다고요? 천만에요. 안하는 거죠. 매일 몇 시간씩 해보세요. 왜 안 됩니까? 못한다는 건 다 핑계일 뿐입니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하는지. 지난주 인천에서 JCC오케스트라가 내 목회 35주년을 기념하는 연주회를 가졌는데, 끝나고 단원들에게 물어보니 이번 공연을 위해 지난 1월부터 5개월을 연습하며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거저 되는 게 있겠습니까? 매일 연습하고, 연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니 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황지의 토레이 신부를 만나고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교회명을 한국예루살렘교회로 바꾸라는 계시를 받았을 때 나의 스승에게 상의했더니, ‘지금 개척교회나 잘 이 끝지 무슨 한국이냐며 바로 일축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꿈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믿었기에 한국예루살렘교회로 개명했습니다. 내가 만약 사람의 말에 내 꿈을 포기했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 지역에서 토닥거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내 주제에 무슨~’, 이렇게 내 꿈을 현실의 잣대로 눌러버린다면 결코 새로운 미래는 맞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인용하는 사건이 바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 지붕을 뚫은 네 친구이야기입니다. 용신할 틈 없

전하세요. 침노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입니다.”

사람은 ‘못 올라갈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니다. 못 올라갈 나무, 쳐다보라!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한다. 나는 믿음으로 나에게 침노하는 자를 기다린다!’ 천사와 끝까지 씨름한 야곱의 침노에 하나님은 저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꿈쩍없이 내려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꿈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자. **한은택 목사**

이초석 목사 인천 전도집회

6.21(금)~22(토, 저녁8시), 23(주일 오전10시), 인천예수중심교회(032-763-9191)
1호선: 동암역 북광장역(서툼은행), 인천2호선: 가재울역 3번출구 (도보7분)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 (요14:8~27)



암행어사는 마패가 생명이다

조선시대에 암행어사라는 제도가 있었 습니다. 이는 왕이 직접 임명한 자가 왕 명을 받고 지방을 순행하면서 악정을 규 명하고 민정을 살핀 관직입니다. 왕이 직 접 민정을 펼 수 없었으니까 암행어사가 왕 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 치정하는 일종의 왕의 대리제도였습니다. 그들은 역마(驛馬)와 역졸(驛卒)들을 이용할 때 마패를 보여 왕의 대리자임을 증명했고, 각 고 을의 수령들의 비위(非違)와 탐오(貪汚) 등을 밝히며 잘못이 드러나면 그들의 죄 질에 따라 형을 집행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암행어사 중 기억하는 인물 은 아마도 박문수일 것입니다. 많은 암 행어사 중에서 유독 박문수를 기억하는 것은 그가 서민들의 애환을 해결하고, 억울한 민중 편에 서서 많은 일을 처리했 기 때문입니다. 계급에 짓눌리고 폭정에 시달리는 조선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능력을 다 발휘했기에 그의 명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문수가 지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를 마을 수령들이 나와 맞았을까요? 아닙니다. 인간 박문수는 아무 힘도, 권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문수가 이 집 저집 기웃거리며 민심을 살피려 할 때 애매한 오해도 받고, '해결해 줄 것 아니 면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소리도 술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인간 박문수로 는 전혀 그들의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 다. 그러나 그가 민심을 살피고 나서 마 패를 꺼내 들었을 때 비로소 그 앞에 그 동안 악행을 일삼던 수령들이 머리를 조 아리고 그의 처분을 기다리게 되는 것 입니다. 역졸들이 '암행어사 출도야!' 하 고 외치면 마을 전체가 들쭉거렸던 것입 니다. 마패가 왕의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청각적인 감동보다 시각적인 감동이 크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요일3:8). 마귀는 곧 사단이요, 곧 뱀으로(계20:2), 공중 권세를 잡고 있으며(엡2:2), 어두움 의 주관자(엡6:12)로 그의 졸개인 불신 자의 사후의 영, 귀신을 투입하여 사람 들을 아프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망하 게 하고, 싸우게 하고, 거짓말하게 합니 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친 히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2/3를 귀신 을 쫓는 일에 매진하셨고,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눅13:32) 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하시면 서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성령을 받은 후

에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왕인 내 이름으로 마패를 줄 테니 이제는 너희가 세상으로 가서 내가 한 것처럼 악한 것들을 진멸 하며 나보다 더 큰 일도 해다오.'라고 하 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하 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에 따른 권세가 주어집니다(요1:12). 그 권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 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 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 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 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막16:17~18).

예수 이름
으로
오신
성



령
이
곧 마패
인 것입니

다. 그래서 암 행어사 박문수가 마 패를 꺼내 들면 탐관오리들 이 그 앞에 벌벌 떨듯, 우리가 예수 이 름을 꺼내 들면 마귀와 그의 추종자 귀 신들이 벌벌 떨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 다. 박문수를 보고 탐관오리들이 떠는 것이 아니라 마패를 보고 떠는 것입니 다. 동일합니다. 우리를 보고 귀신이 쫓 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이름' 을 보고 마귀와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 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곧 예수요, 하나 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원과 장 로와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 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한 것입니다(행4:17~18).

목회 초에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안 나 가고 되레 제게 겁을 줬습니다. "이초석, 너는 못 쫓아." 그러는 겁니다. 솔직히 그 때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 속의 성령 이 제 입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 나 는 못 쫓아. 그런데 너 예수 알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 가!" 그랬더니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럼

요, 이초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마패,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능력으로 제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하 고 병들어 지내고 있겠습니까? 바로 마 패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 수님은 마패를 잘 간직하라고 하셨건만, 곧 성령을 소멸치 말라(살전5:19)고 하 셧건만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니면 '설 마 이 마패를 내놓는다고 저 악한 놈들 이 무서워 떨겠어?' 하며 두려워서 내밀 지 못하기 때문에 탐관오리들의 조롱거 리가 되고, 그것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활개를 치게 만드 고 있다는 것 입니다. 마 패 에 는

왕 의 권 세가 있 습니다. 예 수 이름 앞에 하 늘의 것과 땅의 것, 땅

아래 것들이 복종하게 되어있 습니다. 병이 들었습니까? 귀신의 장난 입니다. 마패를 내놓으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안수하신 것처럼 예 수 이름으로 쫓으세요. 감기도(마8:15), 불치병도, 정신병도 다 귀신의 장난이니 쫓아버리세요(막1:34). 사업이 안 됩니 까? 일이 잘 안 됩니까?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꾸짖으신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며 명령하세요. 풍랑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일으키게 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총을 쏘으면 쏘아지 요. 총알이 장전된 성능 좋은 총을 들고 도 사나운 짐승이 달려드는데 쏘지 못 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자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53:5). 예수님이 육

신을 입고 오셔서 로마 병정의 창에 찔 리고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죄와 병 과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였습 니다. 또한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 로 하여금 부요케 하기 위함이였습니다 (고후8:9). 그러므로 우리는 아플 권리 도, 가난해야 할 권리도, 불행할 권리도 없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 마패 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악한 마귀를 대적 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할 수 있습니다(마12:28).

불이 꺼진 집은 도적들의 표적이다

암행어사에게 마패가 생명이듯, 믿는 자 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생명입니다. 마 패를 잃지 않는 법, 성령 충만함을 잃 지 않는 법은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막 9:29).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하는 이유이며,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이유입 니다. 마패를 잃어버리는 순간 귀신들의 밥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도 동트기 전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 도하셨고(막1:35), 기적과 이적을 행하 신 후에도 저녁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눅5:16). 그러니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마치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 달 라고 하듯이 말입니다.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라며 놀 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을 쫓고 병을 고치면 그것을 보고 하나 님이 계심과 지금도 역사하심을 나타내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 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대해 설교하시기 전에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저 역시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먼저 저와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를 영상으로 보여 주는데, 그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고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기 때문입니 다(요4:48).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 장하고, 그 주장에 우리가 당당히 맞서 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 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패,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에서 귀신을 명령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여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 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알립 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 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 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할렐루야!

바빌론 강가에서

물어라(Ask)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And we wept when we remembered Zion...(바빌론 강가에서 우리는 앉아 있었네, 그리고 시온을 생각 하며 눈물을 흘렸네...)”

1970년대 말 세계적인 디스코 열풍 가운데 독일의 4인조 흑인 보컬 그룹 보니엠 (Boney M)이 불러 1978년에 크게 히트한 노래입니다. 디스코 풍의 경쾌한 리듬으로 가사마저 낭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노래는 시편 137편을 가사로 만든 성경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저지른 극악한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바빌론에게 멸망한 후 포로로 잡혀가서 고향 땅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바빌론 강가에서 부른 통한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징계의 이유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저지른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거짓말과 속임수 등, 죄에 무감각해지고 그들의 혀, 마음, 행동이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둘째는 우상숭배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들 마음의 완고함과 탐욕을 쫓아 이방인의 헛된 우상을 따른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

엘 민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소유한 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속을 단련하듯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 포로 생활이라는 고난의 용광로를 거쳐 죄악의 불순물을 정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의 기한을 70년으로 설정하시고, 단련 시간 후에 출애굽과 같이 바빌론으로부터 고향으로의 귀환을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늘 그의 자녀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기를 좋아하시고, 그들이 죄악의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환의 기쁨과 찬양을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완악하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를 희생 제물로 삼아 우리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그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긍휼이 크시므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느9:31).

Dr. 이관섭 장로
kslee@krri.re.kr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NIV]

이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영어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경에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구하라’의 뜻이 ‘물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해결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쌍방대화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과 동업해도 될까요?”, “하나님, 이 사업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먼저 여쭙 봐야 합니다. 일방적인 것은 통보지요. 통보는 아랫사람에게나 하는 것이고요. 만일 내 뜻대로 일을 다 해놓고 하나님께 통보하고, 알아서 다 해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하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 벌여놓고 처리해달라는 형식을 버려

야 합니다.

물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에게 쫓기어 죽게 되자 스스로 자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했고, 그 죄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 물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14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이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총회장 목사님은 가끔 단에서 “내가 죽었습니까? 왜 안 물어보고 일을 시작하고선 일이 안 되면 찾아오는 겁니까?”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컨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찌어다”(욥8:8). 먼저 하나님께, 주의 종께 물어봅시다.

예수중심편집실



:: 진리의 학당 ::

아담을 돕는 배필 (창세기 2:18~25)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생명으로 자존하시는 신이시므로 처소가 필요하지 않으시나 아버지 품에서 나오실 아들을 위해 하늘에 보좌를 마련하셨고, 아들은 사람이 되어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오르심으로 아버지의 영화를 극대화하셨으니 이는 겸손하신 아들이 아버지께 취하실 마음이였다(빌2:5~8). 아버지는 이 같은 아들의 마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을 아들에게 상속하셨으니, 아들을 위해 지으신 하늘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으로 설계되었고, 아들은 인자로서 그 영원한 권좌의 통치자로 그 우편 보좌에 들어가는 노정에서 잠시 딛고 지나가시는 현관과 같은 우주를 6일 동안 창조하셨으며(겔44:1~3) 그를 출산할 여자를 만드셨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골1:15~17).

인자가 여자의 후손이라 함은 인간혈통과 상관없이 성령으로 임하심이니,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왕의 계통을 통해 왕으로 오셨음을 증거했고(마1:1~17),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평민인 여자의 가문을 통해 인자로 나셨음을 증거했다(눅3:23~38). 마리아가 자신을 계집 종, 곧 ‘푸레’라 한 것은 자신이 주님을 수태하고 출산할 산실이라 함이다(눅1:38). 이렇게 인자는 이 땅에서 출생과 죽음을 맛보실 준비를 완성하셨고 이 일에 부름 받은 인류는 육체로는 봉사하고 영으로는 보상받도록 설계하셨으므로 그들이 에덴에서 범죄 한 그것이 인자가 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장애가 될 수 없었으니, 그들을 유혹하여 인자의 노정을 방해하려 했던 마귀는 인자의 손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는 창세전에 이미 확증되었으니(벧전1:18~20) 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첫 아담에 속한 인류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게 하심은(엡1:3~7)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그 아들의 피를 지불하고 사신 아

들들이 되게 하여 영원히 함께 두시려 하심이다. 그러므로 아담에게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2:17) 하신 이 말씀 안에는 ‘네가 먹는 날에는 인자가 죽어 빛을 갠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이 마치 모리아에서 이삭 대신 숫양을 준비하신 것과 같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모실 인자에게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계명으로 주셔서 인류심판 이전에 빛을 갠대속하셨다(요17:2, 10:17~18). 이렇게 에덴의 아담과 그 후에는 사는 영이요, 하늘로서 오시는 인자는 살리시는 영이므로(고전15:45) 사람과 인자가 생명의 약속 안에 일치를 이룬다(히2:11~18). 범죄 한 후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 곧 ‘모든 산 자의 어미’라 하였음은 아담도 선지자인지라 아내인 여자에게 자기 생명을 의탁함이요(창3:20), 이렇게 여자는 첫 아담에게는 생명 전달을 돕는 배필이 되었고, 또한 인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나시니 여자는 마지막 아담을 출산하는 배필이 되었다.

한편 하나님은 여자와 뱀을 원수 관계로 선고하셨고, 또 뱀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셨으므로(창3:15)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며, 여자에게는 후손을 수태하고 출산하여 마귀의 원수로 양육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인자의 길을 위해 예비된 이스라엘 자손의 뭇학선생은 어머니 곧 여자다. 이도 또한 큰 날에 있을 일의 예언인즉,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사신 신약교회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는 일꾼을 양육할 것이요, 여자는 마귀를 원수로 대적하는 그 남자를 출산한다(계12:13~17).

인자로 오시는 길에 인간을 의지하신 예수가 여인을 통해 나타나셨듯이, 우리도 그의 몸 된 교회로서 마귀와 원수의 신분으로 잉태되고 태어났다. 참소자 마귀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쫓겨났고 신약교회는 죽기까지 그의 보혈을 증거함으로 마귀를 이긴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 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계12:10~11).

박덕규 목사

팔전구기(八顛九起)!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정한 만큼의 역경과 슬픔이 다가온다면 얼마나 좋을 까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 원하지 않는 일을 겪게 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경험합니다. 특히 자존심이 강한 저는 실패를 용납할 수 없는 완벽주의 성격을 갖고 있기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훈련을 더 많이 시키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꼬박꼬박 기도하고 말씀도 읽으며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자괴감이 들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무엇 때문에 넘어졌나 뒤돌아보면 아주 작은 돌부리가 있을 뿐 이거든요. 차라리 기도를 하지 않아서 넘어진 거였다면 덜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돌부리가 서러워서,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으면 마귀가 제게 찾아와 “너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다면서 그게 뭐야? 거봐.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계속 넘어지지만 하는 너를 보라고.”라며 조롱합니다. 다행히도 저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말한 것과 반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자세를 고쳐 앉고 입을 열어 방언기도를 시작합니다. 지기 싫어하는 제 성격이 긍정의 힘을 발휘하

는 순간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님은 열른 제가 읽었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하시며 위로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힘을 주십니다. 제게 가장 위로가 되었던 말씀은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잠언 24:16)입니다. ‘의인도 일곱 번이나 넘어졌는데 내가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훈련 과정일 뿐이구나’ 하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바지 툭툭 털며 스윽 일어서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정도 훈련만 있으면 이제는 그만 넘어질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을 때, 바로 8번째 넘어지는 겁니다. 아무지게 뛰어넘어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는데 또 넘어졌으니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속이 상할 대로 상해있습니다. 그래도 마귀에게만큼은 질 수 없으니 상한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알았어. 알았으니깐 열른 일어나.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 하며 제 손을 잡고 한 번에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마치 엄마 손을 잡고 급하게 어디론가 가던 아이가 엄마걸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 발에 걸려 넘어져서 막 울음

을 터뜨리려 할 때 엄마가 “푹! 열른 일어나, 시간 없어.” 하고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길을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재촉하는 엄마가 좀 섭섭하게 느껴지더라도 엄마가 곁에 있음으로 금방 안정을 찾는 아이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며 열른 눈물을 닦고 늘 하던 대로 기도시간을 채우고 말씀을 읽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다시 훈련 받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인 ‘반지의 제왕’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일을 겪게 된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뿐이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누구나 부딪힐 수 있으나, 다시 일어나서 그 난관을 뛰어넘을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고 주저앉을 것인지는 본인의 의지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동안,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혹여 넘어지게 되더라도 그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께 보이며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돌부리에는 두 번 다시 넘어지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며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박영신 성도**

16:9)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최대 관심사인 구원을 위해서 죄를 청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쉬운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약식동원, 두뇌 건강에 좋은 천마차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많은 사역 중에 한 가지가 치유사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8장 3절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같은 장 6절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마태복음 9장 33절에 “병어리가 말하거늘”, 마태복음 11장 5절에 “소경이 보며 앓은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앓는 자를 치료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마태가 성경에 기록한 질환들은 병어리,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

자, 소경, 문둥이, 귀머거리, 죽은 자인데, 이는 그 당시 치료가 어려웠던 질환들에 대해서 좀 더 특별히 기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러한 질환들은 현재까지도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고, 문둥병, 귀신 들린 자를 제외하고는 신경계 질환이며, 간질을 제외하고는 2000년이 지난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질환들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의학이 발달해도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질병도 주님의 섭리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주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천마차는 두통, 어지럼증에 사용하는 약초로 국내에서 재배가 되는 약초입니다. 맛은

달고 독성이 없고 간에 작용을 하는 약초입니다. 뇌의 원인으로 오는 두통, 어지럼증, 간질병, 신체가 뻣뻣한 증상에 도움이 되며, 하루에 2~4g 정도 차로 마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과로를 한 후에 어지러움이 많거나, 만성적인 두통으로 불편함이 있거나, 아이가 틱(Tic) 장애가 있거나, 뇌신경 질환으로 인한 신체적인 뻣뻣함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평소 천마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풍, 간질병, 뇌신경 장애 등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면 이 후의 치료과정도 어렵고 재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미리미리 건강한 마음과 신체를 관리해줄 필요가 있으며, 평소 천마차를 마시는 것도 사전예방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Dr. 설재현 집사
kseolmed@hanmail.net

간절함이 답이다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가 속히 이뤄지지 않을 때 반드시 점검해보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내가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이다.

한나의 간절함이 사무엘을 얻게 만들었고, 야곱의 간절함이 천사와 겨뤄 이기고 축복의 약속을 받게 했으며, 신약의 많은 병자들이 간절함과 믿음으로 예수님께 치료를 받는다.

윤태익 씨의 ‘간절함이 답이다’라는 책에서, 저자는 아인슈타인이 설명한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 간단히 말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쪼개고 쪼개면 결국 하나의 진동하는 에너지파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관찰자의 기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관찰자의 기대, 즉 그 물질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기대대로 양자 물질이 움직인다는 뜻으로, 우리의 소망과 간절함이 가는 대로 세상 만물이 움직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원하는 꿈과 목표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큰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의 마음가짐으로는 응답을 받기 힘들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몰입하고 질주하면 하나님이 돕고 세상이 돕는다. 믿지 않는 분들도 간절함이 결과를 이끌어낸다고 하는데, 믿는 우리들이야 오죽하랴.

목사님은 ‘소망의 열도가 성공과 비례한다. 또 소망의 열도가 기도의 응답과 비례한다.’고 늘 말씀하시고, ‘기필코 신앙’도 자주 말씀하신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우리도 소원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입을 크게 벌리고 간절함으로 무장하여 우리의 꿈을 반드시 이뤄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역사의 획을 긋는 귀한 한 해가 되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잠8:17).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